

지독한 '아흡수'

정말 지독한 아흡수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10승 고지 점령에 이번이 실패하고 있다.

류현진은 23일 열린 2019 미국프로야구 메이저 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와 홈경기에서 타선의 침묵과 수비수들의 난조로 승패를 기록하지 못했다.

류현진의 승수는 지난 5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와 원정경기 이후 3경기 연속 9승(1패)에 멈춰있다.

류현진은 이 기간 야수들의 수비 실책과 타자들의 침묵, 불펜투수들의 방화로 이번이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류현진은 11일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전에서 6이닝을 1실점으로 막고 3-1로 앞선 7회 마운드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불펜투수 로스 스트리플링과 딜런 플로로가 7회 2실점하며 류현진의 10승을 날려버렸다. 불운의 시작이었다.

류현진은 17일 시카고 컵스전에서 다시 10승에 도전했다. 이번엔 야수들이 괴롭혔다.

류현진은 1-0으로 앞선 6회 선두타자 하비에르 바에스를 3루 땅볼로 유도했다. 그런데 3루수 저스틴 터너가 송구 실책을 범했고 이는 2실점의 빌미가 됐다.

타자들도 류현진이 던진 7회까지 단 2점밖에 올

리지 못했다. 류현진은 7이닝 무자책점(2실점)을 기록하고도 10승에 실패했다.

23일 콜로라도 로키스전에서도 야수들이 문제였다.

류현진은 1-1로 맞선 3회 유격수 크리스 테일러의 포구 실책으로 2실점 했다. 또 6회까지 3점의 득점 지원을 받는데 그치며, 6이닝 동안 3실점(1자책점)에도 승패를 기록하지 못했다.

타선이 약한 팀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다저스 타선은 최근 분위기가 좋다.

콜로라도와 경기 이전 4경기에서 무려 31점을 터뜨렸다. 올 시즌 팀 타율도 0.266으로 내셔널리그 전체 2위다. 그런데 다저스 타선은 류현진 등판한 경기에서만 유독 침묵하고 있다. 야수들의 실책도 집중된다.

류현진은 최근 3경기에서 19이닝 2자책점, 1.06의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도 단 1승도 챙기지 못했다. 지독한 아흡수다.

류현진이 아흡수에 걸린 건 처음이 아니다. 그는 KBO리그 한화 이글스에서 뛴 때 더 심한 경험을 했다.

류현진은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둔 2012년 타선의 침묵과 불안한 수비, 불펜 투수들의 난조로 많은 승수를 쌓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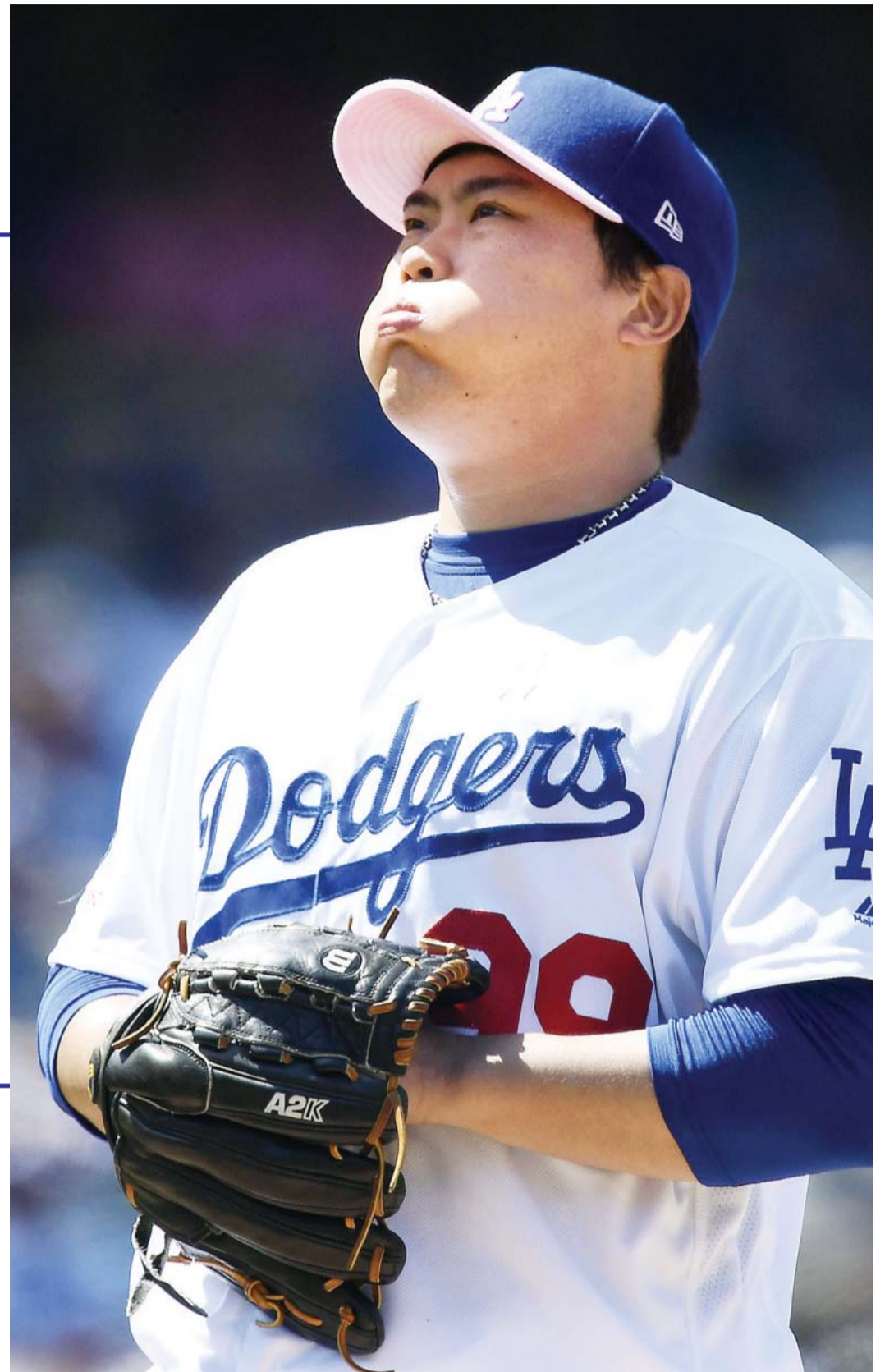
당시 류현진의 10승 도전은 눈물겨울 정도였다. 2012년 9월 6일 대전 롯데전에선 무려 132구를 던지는 역투 끝에 승리를 거뒀다.

10승이 달린 정규 시즌 마지막 선발 등판 경기였던 10월 4일 대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전에선 연장 10회까지 128구를 던졌다.

그런데 타선이 터지지 않아 1-1 무승부로 끝났다. 류현진의 최종 성적은 9승 9패 평균자책점 2.66이었다.

당시 한화 타자들은 류현진이 등판하기만 하면 지독한 만큼 점수를 뽑지 못했다. 류현진이 완벽한 모습을 뽐내고 있는 만큼,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다.

이런 모습은 올 시즌 다저스에서도 재연되는 분위기다. 리그 최고의 활약을 펼치는 류현진의 호투에 동료들이 얼어붙고 있다. /연합뉴스



희망의 '반전 매력'

차명진, 5이닝 1실점 호투

문경찬, 9회 철벽 마무리

KIA 올 시즌 LG전 5연패 끊어

전력의 선수 출발...마운드 중심 부상



기회를 놓치지 않은 문경찬과 차명진이 KIA 타이거즈 '젊은 마운드'의 희망이 된다.

KIA는 지난 22일 LG 트윈스와의 원정경기에서 3-2 승리를 거두면서 LG

전 5연패에서 탈출했다.

의미 있던 연패 탈출의 중심에는 선발 차명진과 마무리 문경찬이 있었다.

이날 차명진은 1회 선두타자 이천웅을 내야 안타로 출루시켰지만 세 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처리했다. 2회 볼넷 2개를 내주며 흔들리기도 했지만 1실점으로 위기를 잘 넘겼다.

이후 5회까지 단 한 명의 주자만 내보내면서 차명진의 5번째 선발 등판은 5이닝 3피안타 2볼넷 5탈삼진 1실점으로 끝났다. 그리고 차명진은 1회 3점을 뽑아준 타자들의 도움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시즌 3승째.

차명진의 승리를 지켜준 이는 '철벽 마무리' 문경찬이었다.

9회말 3-2에서 출격한 문경찬은 채은성과 오지환을 각각 3루수, 2루수 땅볼로 처리했다. 대타 서상우에게 좌전 안타를 내준 뒤 대주자 신민재에게 도루까지 허용했지만, 유강남과의 승부에서 유격수 김선민의 좋은 수비와 함께 승리로 경기를 끝냈다.

문경찬은 9번째 세이브에 성공했고, 평균자책점을 0.96으로 끌어내렸다.

LG전 연패 탈출의 주역이 된 차명진과 문경찬은 예상과 다른 극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다.

이단 부상으로 신음했던 차명진은 올 시즌에도 전력의 선수였다. 지난해 마무리캠프에서 투구폼을 바꾸는 등 세 출발선에 섰지만 대만 스프링캠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다. 문경찬의 시작도 특별한 보직 없는 불펜 투수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올 시즌 KIA는 4.5 선발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선발로 시작한 '고졸 루키' 김기훈이 제구 난조로 재정비에 들어갔고, 한승혁은 이단 부상 재발로 예를 태우고 있다. 임기영은 구위 회복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선발 기회를 받은 양승철, 강이준 등은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차명진



문경찬

5월 16일 KT전에서 데뷔 6년 차에 프로 데뷔전을 치른 차명진은 5월 24일 KT전을 시작으로 선발로 5경기에 나와 3승을 신고했다. 선발 5경기에서 23.1이닝에 그친 게 아쉽지만, 좋은 구위를 바탕으로 피안타율은 0.228, 이닝당 출루 허용률은 1.39로 묶였다.

문경찬의 올 시즌은 더욱 더 놀랍다.

마무리 김윤동이 부상으로 빠진 뒤 '임시 마무리' 역할을 맡은 그는 이내 '임시' 단어를 떼어내고 KIA의 뒷문을 굳게 지키고 있다.

불펜 맨 뒤로 자리를 옮긴 뒤 처음 출전한 4월 27일 키움전에서 세이브를 수확한 문경찬은 '0'의 행진 속에 1승 9세이브를 기록했다. 마무리로 나선 17경기에서 자책점을 남기지 않았다. 올 시즌 전체 성적으로 봐도 문경찬은 22일까지 28경기에 나와 28이닝을 3실점(3자책점)으로 틀어막는 등 빠르고 공격적인 피칭으로 '진짜 마무리'가 됐다.

주목받지 못한 시작이었지만 차명진과 문경찬이 반전의 시간을 보이며 KIA 마운드에 날개를 달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58초면 충분했다

정찬성 'UFC 파이트 나이트 154' 페더급 모이카노에 1R TKO 승

정찬성(32·코리안존비MMA)이 그의 별명인 '코리안 좀비'처럼 다시 일어섰다.

정찬성은 23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154' 메인이벤트 페더급 경기에서 헤나토 모이카노(30·브라질)를 1라운드 TKO로 제압했다.

정찬성의 종합격투기 전적은 15승(5KO·8서브미션) 5패가 됐다. UFC 전적은 5승 2패다.

지난해 11월 아이르 로드리게스(멕시코)에게 빼아폰 KO패를 당한 정찬성은 7개월 만의 재기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승리가 확정되자 정찬성은 케이지로 올라가 태극기를 치켜들고 세리머니를 펼쳤다.

경기는 순식간에 끝났다. 탐색전을 펼치던 정찬성은 모이카노가 왼손 짚을 내는 순간 이를 피한 뒤 오른손 카운터 펀치를 모이카노의 턱에 적중시켰다. 왼손 훅 연타까지 맞은 모이카노는 그대로 매트 위로 쓰러졌다.

정찬성은 모이카노의 등에 올라타 파운딩 펀치를 날렸다. 주심은 58초 만에 정찬성의 승리를 선언했다.

승리가 확정되자 정찬성은 케이지로 올라가 태극기를 치켜들고 세리머니를 펼쳤다.



관중들은 '좀비'를 연호하며 기립박수를 보냈다.

정찬성은 경기 뒤 공식 인터뷰에서 "오른손 카운터 펀치는 계속 내가 연습했던 펀치다. 언제 나올지 시간문제였을 뿐"이라며 "다음에 누구와 싸워도 상관없다. 아무하고 붙여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동강대, 3경기 연속 콜드게임승

한국대학스포츠협 U리그

호원대와 5차전 5회 10-0 승

동강대 야구부가 2019 KUSF(한국대학스포츠협회) U리그에서 3경기 연속 콜드게임승을 거뒀다.

동강대는 최근 순천팔마구장에서 끝난 U리그 후반기 D조 호원대와 5차전에서 10-0, 5회 콜드게임승을 거뒀다.

이날 동강대 타선은 만루포 등 홈런 2개 포함한 장타 12안타로 3경기 연속 콜드게임을 완성했다. 마운드에서는 이동우, 하선우가 각각 1안타에 볼넷 1개만을 내주고 삼진은 5개를 뽑아내며 호투했다.

동강대는 오는 28일 한일장신대와 후반기 최종전에서 무승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 조 3위까지 주어지는 U리그 왕중왕전 티켓을 확보한다. 전국 체전 광주 대표 자격도 얻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